

‘긴급조치 9호’는 내 인생의 선물!

_박인혜 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글 · 오유석 ysoh@skhu.ac.kr

1970년대 중반 서울은 격변의 소용돌이를 한 가운데에서 맞이했다. ‘10월 유신’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집권체제인 4공화국의 출범과 연이은 긴급조치 발동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어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1979년 10·26사태 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를 위반한 학생 구속자를 낳은 긴급조치 9호가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었다.

바로 1975년 그해 3월에 박인혜 대표(이하 박인혜)는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박인혜는 ‘긴급조치 9호’가 자신의 일생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짐작조차 못했다. 대학 문이 닫히고 수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갓 시작한 대학생활은 즐겁기만 했다. 당시만 해도 이화여대는 화려한 학교, 비싼 학교, 여자가 다니는 제일 좋은 학교 뭐 이런 이미지가 가득할 때였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박인혜는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즐기기 위해 열심히 놀았다. 그렇게 3학년(1977년) 1학기가 되었다.



기독교학생회를 만든다

비운동권의 모범 학생이었던 박인혜가 학생운동권에 연결된 것은 교회 쪽 운동이었다.

“나는 기독교 배경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단인데, 대학교 삼학년 올라가던 겨울에 감리교 전국청년회 임원으로 뽑히면서 그 연출 연출로

해가지고 서울EYC(Ecumenical Youth Council) 서기까지 된 거예요”

박인혜는 조금씩 학생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운동권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각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학생운동권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기독교운동을 통해 교회를 바꾸는 데 앞장섰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기독교운동을 할 것인가? 학생운동을 할 것인가?” 기로에 섰고 고민 끝에 “내가 학생인 이상 내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3학년 2학기에 이화여대 운동권에 합류했다.

당시 이화여대에는 기독교학생을 대표해 전국 회의에 참석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조직으로서 ‘기독교학생회(이대 SCA)는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직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학도호국단을 이용하지”

바로 그 시점에 ‘모범생’으로 알려진 박인혜는 학교의 부름을 받고 학도호국단 종교부장에 임명되었다.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회는 학도호국단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학생회 때의 조직적 편제 및 전통과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단지 임원만 선출에서 임명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학생회 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학생회비로 들어오는 비용을 이대는 백퍼센트 내지는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없애가지고 각 학도호국단 활동비로 다 뺐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면 전액 다 뺐어요. 부서마다 방도 하나씩 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예산도 많고 장소도 있고. 더구나 이대가 기독교 학교니까 종교부의 위상은 더 높았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독교학생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부원들을 모집한다는 명분을 세워 기독교학생회 멤버들을 모은 거죠”

그때(1978년) 들어 온 이대 SCA의 신입생들 중에는 모래시계의 작가 송지나, 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인 윤정숙,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인혜와 함께 새문안교회(서경석·신대균 등)와 KSCF 활동을 한 유

종성(서울대 사복과 75)과 운동권 커플이 된 유승희(이대 기독교학과 78, 전 국회의원) 등 인재가 많았다.

긴급조치 9호와 이화여대 학생운동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와는 180도 딴 길로 와 버렸다. 긴급조치 9호 세대들은 그 잘하던 공부, 그 타고난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운동권세력으로 탈바꿈했다. 딱 두 길. 유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정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반정부학생이 되거나 선택은 두 길 밖에 없었다. 학교 문이 닫히고 친구들이 깃뻏히는 폭력정권에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정부가 되어 버렸다.

긴급조치 9호 시기에 이화여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화여대 출신의 쟁쟁한 운동권 학생들이 줄줄이 구속자 명단에 올랐다. 학내 사찰이 극심한 긴급조치 9호 상황에서, 남학생들조차 감히 학내시위를 감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이화여대생들은 끊임없이 도발을 시도했다. 1975년 9월 23일 수도여사대의 ‘2천만 수도권인의 함성’ 유인물 배포사건으로 이화여대 흥사단 아카데미 회장을 맡고 있던 고은광순이 연루되어 제적되었다. 곧이어 1975년 10월 10일 <새벽>이라는 제호의 총 31쪽에 달하는 유인물(김지하의 양심선언)이 ‘이대 새벽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강의실과 화장실에 배포되었다. 이른바 이화여대 ‘새벽’ 지 배포사건으로 이형량(사회학과), 정경임(국문과), 정선자(국문과)가 구속되었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운동권은 새얼·파워·흥사단 아카데미 등 3대 서클이 중심이 되어 든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학내 시위도 세 서클이 함께 의논하고 준비했다. 누가 시위를 주도하고 감옥에 들

어갈 것인지, 누가 남아 다음을 기약하고 옥바라지를 할 것인지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여기에 '기독교학생회', '민속극연구회' 등과 공조적인 학생회와 학보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학내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그것기에 운동권 서클과 공조적인 학생회 양쪽에 발을 딛고 선 박인혜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

1978년 5월 4일 시위를 주동하다.

이제 4학년이 되었다. 그 때는 '4학년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문화가 있었다. 2학년 때는 세미나를 해서 의식화 공부를 하고, 3학년은 4학년이 시키는 행동대를 하고, 4학년이 되면 시위 주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불문율처럼 있었다.

4학년이 된 박인혜는 지하로 잠적해 있던 학내 서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4·19 기념학술대토론회' 라는 형식을 빌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반정부 비판을 계획했다. 이대에서 가장 큰 학관 414호에서 개최된 학술토론회는 남녀학생 500여 명이 모인 성공작이었다. 덕분에 박인혜는 그날부터 경찰의 사찰대상이 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대대적인 교내시위를 계획하고 '파워' 대표(김광희), '홍사단 아카데미' 대표(최정순), '새얼' 대표(전방지), '기독교학생회' 대표(박인혜) 이렇게 네 명이 모였다.

“모여서 역할분담 했다. 내가 시위를 하고 들어가면 남아 있는 사람이 뒷마무리를 하고 2차 시위를 맡기로 했다”

이번에는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선배들의 경우를 보면 미리 정보가 새

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입조심을 시켰다. 드디어 5월 4일 긴급조치 9호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정부 시위(이화여대 반정부 유인물 살포사건)가 이대에서 벌어졌다. 박인혜(국문과), 한경희(가정관리과), 오현주(사회생활과)가 사범대학 축제 '벗님네와' 행사 중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셋 다 잡혀버렸다.

“긴급조치 구호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벌어진 시위가 이대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깜짝 놀랐어요. 타이밍을 보고 아직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대 여학생인 우리가 겁도 없이 치고 나온 거예요. 당일 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이내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을 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고립감에 하루 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집으로 돌아 왔어요. 그리고 5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온 식구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친거예요”

이렇게 잡혀와 보니 4일 현장에서 붙잡힌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20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책임은 뒤에 남은 최정순에게 미뤘다.

“일단은 최정순이 남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정순이가 시켜서 했다' 미룬거죠. '우린 다 모른다' 이렇게. 근데 생각지도 않게 정순이가 곧 잡힌 거죠. 그래서 교사죄를 더 뒤집어 쓴 거예요”

대체 무슨 애길까?

뒤처리를 맡았던 최정순(사회학과 75)은 미루지 않

고 재차 시위를 주도했다. 5월 9일 신양강조주간 채플 시간에 이화인 3,000여 명이 모인 대강당에 뛰어 오른 최정순은 직접 쓴 '8천 이화인이여!' 라는 제호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유인물을 돌렸다.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최정순은 앞서 벌어진 5월 4일 시위에 대한 책임까지 덮어썼다. 박인혜 등 3명이 조사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최정순에게 미루었는데 장본인이 딱 붙잡혀 온 것이다. 그때서야 박인혜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했다'고 재판과정에서 반복했지만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덩치까지 큰 최정순과 달리 박인혜 등 3명은 죄다 순진하고 가냘프게 보였기 때문에 검찰은 최정순을 교사범으로 몰아 세웠다. 결국 항소심에서 최정순은 교사죄까지 덤핑이로 받아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11개월 후 형 집행정지를 받아 박인혜 등 다른 3명과 함께 출소했다.

감옥에서 다시 시작된 인생- '여성의전화 대표'가 된 이유

길지 않은 감옥생활이었지만 여기에서 박인혜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다.

"78년도에 여성학 과목이 개설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너무 수강생이 많아서 찼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여성학 공부를 한 거죠. 밤 열두시 다 돼서 뽕끼통(변기통) 있는 좁은 감방에 겨우 들어가 앉았는데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냐?' 보니까 그게 간통들만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도 좀 양질의 사람들 있는데 넣어준다는 것이 주로 절도, 간통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살아온 얘기 듣고 '아, 이게 여성문제가 이런 거

구나' 하는 걸 굉장히 터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범죄자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하나같이 다 (여성)가장이고, 남편도 아닌 내연의 남편들이 다 얹혀살고, 뜯어먹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잡범들에게서 사회 현실을, 매 맞고 가난하고 고달픈 여성들의 현실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 여성학 공부는 결혼에서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나와 운동권 출판사에서 활동하면서 운동권 최고의 명망가 남편(이호웅, 서울대 정치학 69)을 만나 곧 결혼했다. 운동권 남편도 역시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이었던 것이다.

"살면서 나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잘 해주고, 가사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여성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거는 조직적으로 운동을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했죠"

그래서 시작된 신학공부, 출판운동, 여성의전화 활동은 4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 정치하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독립된 여성, 주체적 여성으로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했고 곧 할머니가 되는 지금도 박인혜는 박사학위논문을 눈앞에 두고 젊은 2, 30대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을 밝히고 있다.

글 · 오유석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연구교수